
지방 거주 생원 조세환의 문과 응시 실태

- 『趙世煥日記』를 중심으로 -

원 창 애

(경상대학교 연구교수)

I. 서언

II. 조세환의 가계(家系)

III. 조세환의 문과 응시 실태

IV. 조세환의 유생과시 응시와 과업

V. 결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19S1A5B5A02046314)

● 투고일: 2020. 8. 17. ● 심사일: 2020. 8. 19. ● 게재확정일: 2020. 9. 4.

● <https://doi.org/10.31218/TRKH.2020.09.139.87>

www.kci.go.kr

요약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 개인일기 연구를 통해 과거 운영의 실제 다양한 면모를 살펴 과거시험과 시험 준비를 하는 유생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1657년(효종 8) 문과에 합격하여 숙종 초기까지 관직생활을 한 조세환(趙世煥)의 문과 응시 사례를 통해 17세기 문과 운영의 실태를 보고자 한다.

조세환의 문과 응시 과정은 그가 약 33년 동안 기록한 『조세환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일기는 종합생활일기로 그의 고향 홍주에서의 생활, 서울 생활, 그리고 관직에 있으면서 적은 관직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환은 1633년(인조 11)에 19세의 나이로 생원을 획득한 충청도 홍주의 유생이었다. 현전하는 그의 일기는 33세 때부터 시작되는데, 10년간 문과에 응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생원의 문과 응시에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유학과 달리 원점이었다. 조세환은 생원으로 경학에 조예가 깊었고, 여러 제술 과목 중에서 논(論)에 능하였다. 그러므로 원점이 적용되지 않는 정시나 별시에서 문과 합격을 기대하기 보다는 식년문과에서 문과에 합격할 확률이 높았다. 그는 문과 초시인 향시를 치르기 위한 원점 150점의 기준을 채워야 했다. 그는 이 원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서울에 드나들었다. 그는 성균관과 반촌에 기거하면서 원점을 획득하고, 유생과시에도 응시하였다. 그에게는 제술을 위주로 하는 절일제보다는 유생전장에 유리하였다. 그 결과 유생전장에서 2분의 점수를 받아 1657년(효종 8) 정유식년 문과 회시에 바로 응시하였고 전시의 책문을 잘 지어 탐화랑이 되었다.

그의 문과 응시 사례를 통해 생원·진사의 문과 응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그간 법전과 연대기 자료에서만 접하였던 생원·진사의 원점 획득 과정, 성균관에서의 유생과시 그리고 유생과시의 은사와 문과 합

지방 거주 생원 조세환의 문과 응시 실태

격의 상관관계 등을 17세기 당대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조세환, 식년문과, 원점, 유생진장, 은사(恩賜)

I. 서언

조선시대 개인일기 연구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1990년대 개인 집 안에 소장하고 있던 고문헌 조사·수집이 활성화되고, 미시사·일상사·생활사 등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계에서도 점차 개인일기에 주목하였다. 역사 분야와 일기를 문학의 한 장르로 보는 문학 분야에서 전국의 개인일기 현황을 조사하였다.¹⁾ 게다가 주제별 주요 일기의 번역 작업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²⁾ 최근에는 개인일기의 사료적 가치가 부각되어, 문화재연구소에서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전국의 개인일기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³⁾

역사분야에서도 양반의 일상사라는 측면에서 개인 일기를 다룬 연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전하는 개인일기가 사족 가문에서 기록된 것이 많다보니, 일기 저자의 학업, 과거 응시 내용이 자세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기 저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유생의 학업, 과거시험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였다.⁴⁾ 최근에는 유생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일기의 과거

-
- 1) 정구복(1996),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65과 염정섭(1997),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 현실』 24과 황위주(2007)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조선시대 일기류 목록 및 소장처」,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국학진흥원과 최은주(2009),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등이 있다.
 - 2) 황위주(2010), 앞의 책.
 - 3)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5년 『조선시대 개인일기 1: 대구·경북』, 2016년 『조선시대 개인일기 2: 인천·경기』, 2017년 『조선시대 개인일기 3: 서울』, 2018년 『조선시대 개인일기 4: 충청·강원·전라·경남』 등, 소장처를 중심으로 개인 일기들을 조사하여 목록화하였고, 주요한 일기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 바 있다.
 - 4) 전경목(2007), 「조선 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 응시: 권상일의 『청대일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정순우(2007), 「18세기 성균관의 일상과 과거」, 『이재단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전경목(2010), 「서재 경영과 교육활동」, 『승명총록으로 보는 조선 후기 향촌지식인의 생활사』. 차미희(2013), 「17세기 예안 사족 김영과 과거시험」, 『국학연구』 23. 김경용(2015), 「일기자료를 통해 본 조선사회의 가학사례

기록을 근거로 한 과거 실태를 다룬 연구 성과도 나왔다.⁵⁾

본 연구도 17세기 개인일기를 통해서 당시 문과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여기서 주된 자료로 활용한 일기는 『趙世煥日記(조세환일기)』이다. 조세환은 충청도 홍주(洪州)에 거주하였던 임천 조씨 가문 출신이다. 그는 1615년(광해군 7)에 홍주에서 태어났고, 1633년(인조 11) 19세의 나이로 증광 생원시 2등 15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생원이 되었다. 그후 1657년(효종 8) 식년 문과에서 갑과 3등으로 합격해서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로 있다가 1683년(숙종 9)에 사망하였다. 그의 일기는 2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1책은 1647년(인조 25) 11월 15일부터 1668년 11월 9일까지 제2책에는 1668년 11월 18일부터 1680년(숙종 6) 9월 8일까지 실려 있다.⁶⁾ 제1책이 1647년 11월 15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일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일기에 주목하게 된 것은 조세환이 지방 거주 생원으로서 문과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개인일기를 통해 과거를 연구한 성과들은 유학으로서 문과에 응시한 사례를 다루었다. 조세환은 지방 거주 생원으로 문과에 응시하였는데, 성균관의 유생과시인 유생전강을 통해 점수를 받아 바로 식년문과 회시에 응시하였다. 그의 문과 응시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유학과 달리 성균관 원점, 유생과시, 유생과시에서 은사로 받은 회시직부 혹은 점수로 인한 문과 초시인 한성시까지도 검토 대상이 된다.

연구 I: 단계 김인섭(1827-1903)의 세 아들의 경우, 『교육사학연구』 25-2. 김동석(2015), 「과거시험의 공동제술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47. 채휘균(2015), 「조선 중기 과거응시자들의 과거여정과 체험: 고대일록과 계암일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9. 원창애(2017), 「조극선 일기를 통해본 17세기 전반의 과거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83 등이 있다.

5) 차미희(2013), 「계암일록을 통해본 17세기 전반 문과 경상도 향시」, 『한국사학보』 53.

6) 『조세환일기』는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방 생원 조세환의 문과 응시 실태를 살펴면서 지방 거주 생원이 성균관 원점을 어떻게 획득해 가는지 그 실체를 보려고 한다. 생원·진사가 관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점 300점이 요구되었으나, 지방의 향시나 한성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원점이라 하여 원점 150점이 필요하다. 17세기 당시 조세환은 필요한 원점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주목하면서 그의 문과 응시 과정을 보고자 한다.

둘째 지방 생원으로 원점을 획득하기 위해 서울에서 지내면서 응시하는 유생과시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특히 조세환은 생원으로 제술 보다는 유생진장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 그러므로 유생진장의 절차와 그 결과가 식년문과 응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는 유생과시가 정례화 되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었다. 조세환이 유생과시에 관심을 두었던 효종 때에는 유생과시로 받은 은사는 식년문과에만 적용되던 때이다. 유생과시의 은사자가 늘면 문과 한성시 정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세환일기』에 실린 정유식년 초방(草榜)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II. 조세환의 가계(家系)

조세환은 충청도 홍주(洪州)의 사족으로 본관은 임천(林川)이다.⁷⁾ 그

7) 趙應忱(무과)-趙璋-(系)趙仁賢-趙確
趙碩-趙世煥(문)
趙礪-趙世達(진)
趙世俊
趙世彦
趙世養(出)
趙礪-(系)趙世養

趙璜

의 일족이 홍주에 거주하게 된 것은 1602년(선조 35) 겨울이었다. 그의 조부 조인현(趙仁賢)이 양모(養母)를 비려 가족을 데리고 홍주에 갔다가 숙병으로 그곳에서 사망하자⁸⁾ 조인현의 아내 여흥민씨는 어린 자식 4명을 거느리고 홍주 지곡촌(紙谷村)에 정착하였다.⁹⁾

홍주 지곡촌은 조인현의 양모 청주한씨 부친인 한수량(韓守良)의 별서(別墅)였다. 한수량은 평해군수 한탁(韓倬)의 아들로 병조판서 청양군 한치의(韓致義)의 손자이며, 좌의정 한확의 증손이다. 그는 서울 건천동에 살며 1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12명이 사망하자, 나머지 두 딸을 데리고 별서(別墅)인 홍주 지곡촌으로 갔다. 두 딸 중 하나가 조세환의 증조부인 조장(趙璋)과 혼인하였는데, 그가 신흠시절 병을 얻어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하여 그대로 지곡에 장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의 부친 조응침(趙應枕)이 셋째 아들 조성(趙璫)의 아들인 조인현을 그의 양자로 삼아 적장자의 계통을 잇게 하였다.¹⁰⁾ 이에 조인현은 홍주와 서울의 생각을 왕래하며 두 모친을 모시다가 31세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조세환의 선대는 누대에 걸쳐 서울에 거주하였다. 조세환의 6대조 조원경(趙元卿)은 진사로서 1466년(세조 12) 알성 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 사성을 지냈다. 5대조 조익(趙翊)은 1495년(연산군 1)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1504년(연산군 10) 문과에 합격하여 군자감 정을 지냈다. 고조부 조응침은 무과에 합격하여 구성(龜城) 도호부사를 지냈다. 5대조

趙璫-趙仁賢(出)

趙仁輔

趙璫-趙仁吉

趙仁熙

8) 『林川趙氏文行錄』 「家狀」(第三男 校尉公 諱稷撰) 16b면

9) 『林川趙氏文行錄』 「學生公兄弟家狀」(從子監司世煥撰) 20면a면.

10) 『조세환일기』 무자년 5월 5일.

조응침은李世林의 딸 전의이씨에게서璋을 낳고, 유림(柳瀾)의 딸 전주류씨에게서璫을 낳았다. 그러므로 장과 성은 배가 다른 형제였다.

조익은 5남을 두었는데 1남 조응겸, 3남 조응공이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였고, 2남 조응순, 4남 조응침이 무과에 합격하여 관직을 지냈다. 5남 조응관은 본인이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의 자손 대에는 지속적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다만 조세환의 증조부 조장, 생증조부 조성은 모두 일찍 사망하여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의 조부인 조인현은 서울 북부 순화방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학문에 재능이 있었고, 월정 윤근수(尹根壽)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우계(牛溪) 성혼(成渾)도 그의 일기에 조인현에 대해 행실이 돈독하고 박학한 선비라고 기록할 정도였다. 조인현은 이처럼 장래가 촉망받았기에 성혼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던 평난공신 여양군 민인백(閔仁伯)의 딸과 혼인하게 된 듯하다. 민인백은 감찰 정희린(鄭姬隣)의 딸과 혼인하여 2남 4녀를 두었다. 장녀는 곽천주(郭天柱), 차녀는 조인현, 삼녀는 침지 정종해(鄭宗海), 사녀는 승지 유충립(柳忠立)과 혼인하였다.¹¹⁾ 조인현 그는 여흥민씨와의 사이에서 확(確), 석(碩), 옥(礪), 숙(黼) 등 4남을 두었지만 31세에 사망함으로써 입신양명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맏아들 확은 19세에 사망하여 둘째 아들 석이 실질적으로 장자가 되었다. 조인현이 31세에 사망하자, 그의 아내 민씨는 아들 석을 서울로 보내며 입신하여 집안을 일으키도록 당부하였다. 조석은 14세에 삼척 부사로 부임한 외조부를 따라가 죽서루부(竹西樓賦)를 지어 외조부에게 크게 칭찬받았을 정도로 문장이 뛰어났다. 그는 공신이었던 외조부 덕택으로 준원전 참봉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수토병을 얻어 관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그는 함경도에서 얻은 병이 고질이 되어 33세에 사망하였다. 그는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의 증손 이처인(李處仁)의 딸과 혼인하여 1남

11) 『국조인물고』 권51 牛栗從游親炙人, 閔仁伯條.

4녀를 두었는데, 1남이 조세환이었다.

조세환은 13세 때에 부친을 잃어서 어려서부터 계속(季叔)인 조숙에게 글을 배웠다. 조세환이 그의 일기에서 계속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처지에 있고, 스승과 제자의 의리가 있으며 형제의 정이 있다¹²⁾고 표현할 정도로 계속에 대한 정이 남달랐다. 그는 총명하여 15세에 『문선』의 부(賦)를 공부하였고¹³⁾ 19세가 된 1633년(인조 11) 증광 생원진사사에서 생원 2등 15위로 합격하였다.¹⁴⁾

현전하는 일기는 1647년 11월 15일 이전 기록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가 생원이 된 이후 언제부터 문과에 응시했는지 알 수 없다. 『국조인물고』를 참조하면, 그는 병자호란 이후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한 사건과 북경이 함락되어 명의 신종이 사망한 것에 실망하여 관직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으며 증조모, 조모 그리고 모친을 봉양하였다. 그런데 조모 민씨가 그에게 집안이 이렇게 기울었는데 네가 입신양명을 포기하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자, 조모의 뜻을 받들어 다시 과거 응시에 나서 문과에 합격하였다고 한다.¹⁵⁾

당대에 박학한 선비로 인정받았던 조부 조인현과 문장에 능하다고 이름났던 부친 조석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입신하지 못하였다. 조석의 아우인 조옥은 형을 대신해 집안을 돌보느라 중년에 과업을 포기했다. 막내 조숙은 외조부 여양군에게 집안을 일으킬 손자로 지목받을 정도로 명민하였고 독서도 열심히 했지만 과거에 합격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조숙은 1645년(인조 23) 44세의 나이에 사망하여 꿈을 이루지 못했다. 조모 민씨는 물론 조세환의 숙부 역시도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 조세환뿐이라고 생

12) 『조세환일기』 신묘년 11월 11일.

13) 『조세환일기』 기축년 7월 9일.

14)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15) 『국조인물고』 권65, 甲寅 以後 罹禍立節人 趙世煥條.

각해서 그가 학문에만 힘쓰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조옥은 조세환의 두 딸 혼인을 도맡아 치러주었고, 조숙은 조카가 학업에 집중하도록 견책할 뿐만 아니라 경제 기반을 갖추어 줄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¹⁶⁾

그가 문과에 합격하기 전인 1645년 계속 사망, 1650년(효종 1) 조모 사망, 1652년 모친 사망이 이어지자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더욱 과업에 몰두하였고 그의 과거 응시 양상도 달라졌다. 1654년 이전에는 각종 문과에만 응시했지만 그 이후로는 각종 문과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지내면서 전강, 절제 등 유생과시에도 응시하였다. 결국 그는 1655년(효종 6) 유생전강에서 2분의 점수를 받아 1657년 정묘 식년 문과 회시에 바로 응시했고, 전시에서 갑과 3등으로 합격하였다.

유생과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성균관에 거재하든지 아니면 반촌에서 지내면서 도기를 채워야 한다. 생원이 된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른 조세환은 서울에 머물면서 도기를 채워야 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서울 장의동에 종조부 집안이 있었고, 찾아가서 인사드릴만한 인척들도 있었다. 특히 그의 인척은 조선시대의 명문거족 출신이었다.

고조부 조응침(=전의이씨 이세립(李世霖)의 딸) - 증조부 조장(=청주한씨 한수량(韓守良)의 딸)
(=전주유씨 유림(柳濂)의 딸) - 생증조부 조성(=문화유씨 유사신(柳思新)의 딸)
-조부 조인현(=여흥민씨 민인백(閔仁伯)의 딸)-부친 조석(=한산이씨 이처인(李處仁)의 딸)-
조세환(=광주김씨 김의행(金諶行)의 딸)

이미 살펴보았듯이 조세환의 집안이 흥주에 정착하게 된 것은 인수대비의 가문인 외고조부의 별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외고조부 역시 광해군의 장인과는 4촌지간인 명문 가문 출신이었다.¹⁷⁾ 그의 외증

16) 『林川趙氏文行錄』 「學生公兄弟家狀」(從子 監司世煥 撰) 21b면, 22a면, 22b면, 23a면.

17) 柳梯根-柳壽千-柳渾-柳思新
柳潛-柳自新(문양부원군)

조부도 공신이었으며, 외조부는 토정 이지함의 증손이었다. 조세환 역시 김의행의 사위가 되어 『선원록』의 성종대왕의 5녀 경숙옹주(부마 여천위 민자방) 자손록에 이름이 등재되었다.¹⁸⁾

조세환의 가문은 특히 여흥민씨와 인연이 깊었다. 그의 조부는 물론이고, 5대조 조익 역시 여흥민씨 민휘(閔暉)의 딸과 혼인하였다. 조세환이 여천위 민자방(閔子芳)의 외손과 혼인한 것도 조모의 영향이 아닌가 여겨진다. 조세환의 조모 민씨는 그의 생증조모 집안과도 사돈 관계에 있었다. 그녀의 막내 여동생이 유충립(柳忠立)과 혼인하여 광해군의 장인 유자신(柳自新)의 손자며느리가 되었는데, 유충립은 생증조모와는 7촌지간이 된다. 그러므로 조세환은 조모 집안과 생증조모의 집안을 각별하게 여겨 그가 상경할 때마다 이들 집안에 찾아갔다.

조세환이 홍주에서 가까이 지낸 척족으로는 온양정씨인 정우경 집안¹⁹⁾, 밀양박씨 박승휴 집안²⁰⁾ 등이다. 정우경은 조세환 부친을 부모에게

18) 『선원록』 성종대왕자손록 5녀 敬淑翁主.

19) 鄭順朋(文)-鄭礪(文)-鄭之升- 鄭晦- 鄭翼卿(文)
 鄭斗卿(文)
 鄭麟卿(文)
 鄭之謙(進)-鄭暉(進)-鄭羽卿
 鄭翰卿(進)
 鄭應卿(進)
 鄭柱卿
 鄭夏卿
 鄭有卿

20) 朴忠元(文)-朴啓賢(文)-朴安世(文)-朴承宗(文)
 朴安道(武)
 朴安國 - 朴承憲- 朴自挺
 朴自振(生,進)
 朴好賢 - 朴安禮 - 朴承任
 朴承儒
 朴安行(文)-朴承休(文)
 朴承健(文)

효성스럽고 형제에게 우애 있으며 종족과 화목하게 지내며 자신보다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평가하였다.²¹⁾ 정우경 형제는 무자 식년 문과 향시에서 조세환과 동접하기도 하였다.²²⁾ 조세환은 정우경과의 인연으로 서울에 있는 그의 재종형인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에게 부친의 묘갈명을 부탁하였다.²³⁾ 박승휴는 1650년(효종 1) 증광 문과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조세환과 함께 과거시험을 치르러 다녔다. 박승휴가 관직에 나간 후에는 조세환이 상경하였을 때 만났으며, 박승헌(朴承憲)의 아들 박자진(朴自振)과도 교류가 잦았다. 조세환은 홍주에서만 아니라 상경하여서도 이들 집안과 왕래하며 지냈다.

조세환은 상경하여도 의지할만한 친인척이 없는 한미한 가문의 지방 유생과는 달랐다. 그는 서울에 왕래가 잦은 친인척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관직에 있는 이들이 있어서 조세환에게 조정의 분위기나 시험 정보들을 전해 주었다.

Ⅲ. 조세환의 문과 응시 실태

조세환은 19세에 생원이 된 후 43세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조선시대 생원·진사로서 문과에 합격한 사람은 5,238명으로 조선시대 문과 합격자의 35%이다.²⁴⁾ 세기별로 생원·진사로서 문과에 합격한 이들의 점유율을 보면, 15세기 22%, 16세기 28%, 17세기 21%, 18세기 16%, 19세기

21) 『임천조씨 문행록』 傍七代祖 贈參判公 墓誌銘並序, 鄭東溟撰.

22) 『조세환일기』 무자년 7월 26일.

23) 『조세환일기』 신묘년 8월 11일.

24) 여기에서 다루는 통계는 생원·진사를 획득하고 관직에 나갔다가 문과에 합격한 원유계자는 배제하고, 조세환처럼 생원·진사라는 전력으로 문과에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12%로 16세기를 정점으로 합격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 이들의 문과 합격 평균 연령은 18세기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 17세기의 경우 생원으로 문과에 합격한 평균 연령이 36세, 진사로 문과에 합격한 경우는 34.2세이다. 진사가 생원보다 평균 연령이 다소 낮은 것은 제술을 위주로 하는 비정기문과가 식년문과보다 많이 설행되었기 때문이다.²⁵⁾

생원이 되고 나서 생원이라는 전력으로 문과에 합격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0년~28년, 50년 등 다양하지만 생원의 약 75% 정도는 생원이 되고 나서 12년 이내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조세환처럼 생원 합격 이후 문과 합격까지 24년이 걸리는 경우는 생원 문과 합격자의 5%이내에 속한다. 조세환이 조모상과 모친상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던 4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문과 합격까지 20년이 걸린 셈이니 생원 문과 합격자의 10%에 속한다.²⁶⁾ 그의 문과 합격이 이토록 늦어진 것은 아마도 관직을 포기했다가 조모의 권유로 다시 과업을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전하는 그의 일기를 참조하면, 조세환은 1648년(인조 26)에서 1657년(효종 8)까지 10년 동안 3번의 식년 문과, 3번의 정시 문과, 2번의 별시 문과 등 총 8번의 문과를 치렀다. 이 시기에 설행된 문과는 총 17회나 되어 그가 과업을 시작한 후에도 9회의 문과를 치르지 못하였다.²⁷⁾ 조세환은 1649년 4월 정시에서 낙방한 후 홍주로 돌아와 5월 인조의 죽음을 알고, 거애하고 성복하였다. 그리고 8월부터 경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서전』을 석 달 동안 읽고 11월, 12월에는 『주역』을 읽었다.

그러나 1650년 2월 조모가 사망함으로 공부를 중단하였는데, 그 사이에 증광시가 치러졌다. 1651년 2월 소상을 치르고 3월에 『중용』을 읽기

25) 원창애(2003), 「문과 급제자의 전력 분석」,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82~87쪽.

26) 원창애(2003), 앞의 책, 89쪽, 【표 8】 생원의 문과 급제 소요 연한.

27) 조세환이 치르지 못한 향시에 대해 들었던 정보를 포함하여 9회의 문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조세환의 식년 문과 응시 실태

번호	연도	종류	장소	시관	결과	비고
1	1648	식년 초시	청양	도사 어상준, 직산현령 김시진	합격	
		식년 회시	서학 (2소)		낙방	전례강-『가례』, 『경국대전』(중학)
2	1654	식년 초시	면천		합격	논(論) 삼하, 책 삼하
		식년 회시	서학 (2소)		낙방	전례강-『가례』, 『경국대전』(해민서)
3	1657	식년 회시	서학 (2소)	이익한, 오정일, 이탕연, 이성향, 윤형계, 노상의, 이준구(대간 남구만, 안후직)	합격	
		식년 전시			합격	갑과 제3등

시작하였지만, 그해 있었던 식년 문과, 알성문과, 별시 문과에는 응시하지 못했다. 묘소의 석물을 설치하고, 서울에 가서 정두경에게 부친의 묘갈문을 요청하는 등의 일로 분주하였다. 게다가 그해 11월에는 모친이 사망하여 1654년(효종 5) 1월 모친의 담제를 치르기까지 그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번호	연도	시험종류		장소	
1	1650년(효종 1)	증광 초시	사마	결성(8. 12)	
			문과	남포(11. 6)	
2	1651년(효종 2)	정시			李昌炫 등 4인 선발
3		식년 초시	사마	은산	
			문과		
4		알성시			
5		별시			
6	1652년(효종 3)	증광 초시	사마	당진	
7	1653년(효종 4)	알성시			
8		별시			
9		춘당대시			

조세환이 식년 문과 향시를 치른 것은 1648년과 1654년 2차례이다. 식년 문과에 응시한 것은 3차례지만 마지막 1657년에는 유생전장으로 2분(分)의 점수를 얻어서 초시가 면제되어 바로 회시에 응시하였기 때문이다.

생원·진사가 식년 문과 초시에 응시하려면 원점 300점을 획득하여 관시(館試)에 응시하거나 관시 원점의 절반인 150점을 획득하여 한성시나 향시에 응시해야 한다. 생원·진사가 150점의 원점을 획득하면 향시·한성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은 15세기 충숙위나 충찬위 같은 균직에 들어간 이들에게 적용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중종 때에는 소속이 없는 생원·진사의 경우도 원점 150점이 있으면 한성시나 향시를 치르게 해주었는데, 이 규정은 중종 때 『대전후속록』에 실렸다. 이 반원점(半圓點) 제도는 1708년(숙종 34)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²⁸⁾ 반원점제는 식년 문과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증광 문과 초시의 경우 관시 원점이 40점이므로 향시·한성시의 원점은 20점이었다.²⁹⁾ 증광 문과는 비정기 문과이나 초시 시험 절차가 식년문과와 마찬가지로 관시, 한성시, 향시로 되어 있어 반원점제가 적용되었다.

반원점 제도를 둔 것은 생원·진사를 성균관에 나아오게 하고, 문묘를 지키게 하려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 제도가 실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성균관에 거재할 수 있는 생원·진사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생원·진사가 3년마다 배출되어 원점을 획득해야 하는 대상자는 계속 늘어 가는데, 이들이 필요한 원점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었을까? 『태학성전』에는 반원점 획득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선조실록』에 성균관에 거재하지 않으면서 원점을 획득했던 지방 거주

28) 이상무(2014), 「17~18세기 식년시 성균관 원점법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36-3, 117~121쪽.

29) 『광해군일기』 권48, 광해군 3년 12월 12일(정축).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4월 16일(계미).

생원·진사의 사례가 보인다.

1606년(선조 36) 성균관 문묘 동무(東廡) 벽서 사건이 있었다. 이때 받은 공초에 보면, 생원 안덕봉, 진사 안덕린은 증광시 원점을 받기 위해 충주에서 상경하여 반촌에 있는 관비(官婢)의 집에 기거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³⁰⁾ 이들이 관시의 원점을 얻으려 했는지 아니면 향시나 한성시의 원점을 얻으려 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지방에 사는 생원·진사가 원점을 따기 위해서 상경하여 반촌에 숙소를 정하고 성균관에 드나들며 원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시기는 임진왜란으로 마비된 성균관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균관의 동재와 서재에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반촌에 숙소를 정하고 성균관에 드나들며 원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태학성전』의 제증원의를 보면 반촌에서 지내는 유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제증규식에서는 반촌 생활을 허락하지 않았다. 18세기의 『반중잡영』에는 반촌에 나가 지내기도 하였다고 한다.³¹⁾ 성균관에 거재해야 할 유생이 반촌에 지내는 것에 대해 『태학성전』 내에서도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것은 성균관에 거재해야 할 유생이 반촌에서 지내는 것에 대한 규제가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균관에서 거재해야 할 유생의 공간이 충분한지, 거재유생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의 성균관 여건에 따라 규제의 완급이 조절되었던 것 같다.

『조세환 일기』에도 거재유생의 반촌 생활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식년 문과 초시에 합격한 제행(除行) 유생이 제행 원점을 위해서 성균관에 거재하거나 반촌에 머물거나 자유롭게 두고 규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한영(曹漢英)이 대사성으로 있을 때에 제행 유생이 반촌에 머무

30) 『선조실록』 권200, 선조 39년 6월 21일(무오).

31) 박영미(2018), 「17세기 성균관의 인적 구성과 역할」, 『한국교육사학』 40(3), 133쪽.

는 것을 금하여 유생들의 반발을 샀다. 재행 유생 25명이 오래된 관습을 깨려는 대사성에게 자신들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성균관에서 나간 일이 있었다.³²⁾

생원·진사가 필요한 원점을 획득하면 성균관 장무관은 이를 증명하는 공문을 발급해주는데, 이것이 있어야 관시 혹은 향시·한성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³³⁾ 원점이 부족한데도 시험을 치르려는 유생들은 가도기(假到記)를 만들어 공문을 받거나, 허위 공문을 발급받는 일들이 있었다. 허위 공문을 발급해 주는 일이 특히 광해군 때 와서 더욱 잦아졌으며, 그 이후에도 원점 공문을 함부로 발급해주는 일은 계속 문제가 되었다.³⁴⁾ 관시 응시 대상자가 원점이 부족한 경우 간혹 공문을 내어 향시나 한성시에 응시하려고 도모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⁵⁾

조세환은 생원으로 식년 문과 향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원점이 필요하였다. 3년 동안 원점 150점을 얻으려면, 적어도 3년 동안 1년에 50일씩 상경하여 원점을 채겨야 한다. 지방유생이 상경한다고 하여 무조건 성균관에 거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균관에 생원·진사가 지낼 수 있는 방은 20개로 40명이 거재할 수 있었다. 물론 성균관에 방문하여 지인과 함께 지낼 수도 있으나³⁶⁾,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반촌에 거처를 얻어 지내며 원점을 채겨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 생원·진사가 반원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몇 달씩 서울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과 반촌에서 지낼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조세환 역시 1654년(효종 5) 12월에 서울에 가서 1655년 1월 1달 동안은 성균관에서 지냈으나, 그 후에는 반촌에서 지내면

32) 『조세환일기』 신유년 4월 5일.

33) 차미희(2013),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기 문과 경상도 향시』, 『한국사학보』 53, 302~303쪽.

34) 『승정원일기』 효종 5년 4월 17일(병자).

35) 『광해군일기』 권82, 광해군 6년 9월 24일(계유).

36) 최광만(2014), 『『태학성전』의 학사운영규정 분석』, 『교육사학연구』 24(2), 197쪽.

서 과업을 준비하였다.

조세환이 치른 1648년 식년 문과 향시는 현전하는 일기의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어 원점 150점을 획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654년의 식년 문과 향시는 모친상을 마친 직후이므로 반원점을 획득할 기회가 없었다. 반원점 대상 생원·진사가 원점에 구애받지 않고 향시나 한성시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늙고 병든 부모가 있는 경우이다. 1524년(중종 19) 예조에서 늙고 병든 부모가 있는 반원점 대상 생원·진사에게 진성(陳省)을 주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였다.³⁷⁾ 『태학성전』에는 방외(方外) 유생으로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은 반원점이 없어도 향시·한성시를 치를 수 있다고 되어 있다.³⁸⁾ 반원점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병들고 나이 많은 부모가 있는 생원·진사가 반원점을 채우기 위해 성균관에서 지내기가 어려우므로 원점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예조의 진성이 필요하였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의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관시도 원점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喪)을 마친 후 열다섯 달이 차지 않은 자이다. 『경국대전』에 실린 이 규정은 상을 치르고 복(服)을 마친 이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원점에 구애되지 않고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다.³⁹⁾ 이 규정은 『태학성전』에도 관시 응시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조세환이 모친의 담제를 치른 지 1달여 만에 면천(沔川)으로 식년 문과 향시에 응시하러 갔다.⁴⁰⁾ 일기에는 녹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37) 『중종실록』 권50, 중종 19년 4월 3일(정유).

38) 『태학성전』 권3 式例, 大小科擧.

一. 三百點生進 許赴館試 半圓點儒生 許赴鄉漢城試 無點則不許 外方儒生親年七十以上 雖無半圓點者 亦許赴鄉漢城試 在喪終制 依法典 除喪畢後五朔內 不卽做點者 勿爲拘碍 雖未准點 許赴館試

39) 『광해군일기』 권83, 광해군 6년 10월 5일(갑신).

보아 향시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법제적으로 식년 문과 초시는 식년 전 해 가을에 치러져야 하는데, 1654년 갑오 식년 문과 초시는 식년인 1654년 2월 22일로 연기되었다. 예조에서는 효종에게 식년 문과 초시가 연기되었으니 관시의 원점은 10점 추가하여 310점, 반원점은 5점을 추가하여 155점으로 계하 받았다.⁴¹⁾ 이처럼 원점제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던 때에 조세환이 원점 공문 없이 향시를 치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복을 마친 자에 대한 원점 혜택이 반원점 대상자에게도 적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두 번의 향시에는 모두 합격하였지만, 회시에서 낙방하였다. 1648년 무자 식년 회시에서는 초장에서 『주역』 「계사 하(繫辭下)」의 ‘양괘에는 음이 많고, 음괘에는 양이 많다.(陽卦多陰陰卦多陽)’를 만나 ‘불(不)’을 받아서⁴²⁾ 중장과 종장도 치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이유는 회시 초장에서 배송하는 사서삼경 7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불’을 받으면 다른 과목의 점수에 상관없이 탈락이기 때문이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경서 공부에 힘을 쏟다가 조모와 모친의 상을 당해 무산되었다.

모친의 담제 후에 치른 1654년 2월 경오 식년 문과 향시에서 논(論)과 책(策)에서 각각 삼하(三下)을 받아 합격하였다.⁴³⁾ 그는 9월 14일 혜민서에서 전례강을 하고⁴⁴⁾, 9월 17일 시작된 회시 초장 배강 시험은 20일에 들어갔다. 그는 이 시험에서 『주역』 약(略), 『시경』 약, 『서경』 통(通), 『논어』 조(粗), 『맹자』 조, 『중용』 통, 『대학』 통을 받아 도합 10분(分)을 얻었다.⁴⁵⁾ 회시 초장 시험은 응시자들이 7과목을 배송해야 하므로 17일~22일

40) 『조세환일기』 갑오년 2월 10일.

41) 『승정원일기』 효종 4년 12월 7일(기사).

42) 『조세환일기』 무자년 10월 17일.

43) 『조세환일기』 갑오년 2월 20일.

44) 『조세환일기』 갑오년 9월 14일.

45) 『조세환일기』 갑오년 9월 20일.

까지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24일 증장, 26일 증장을 치렀다.

회시 초장 강경 시험 점수 10분에다 제술 시험에서 생획을 얻은 여성제(呂聖齊)가 회시 장원을 하였는데, 회시에서 제술로 생획을 얻은 사람이 6명이었다. 그 결과 강경시험에서 13.5분을 받은 사람도 낙방을 했다.⁴⁶⁾ 갑오 식년 문과의 합격자는 34명이다. 그 중에서 제술 점수를 더해서 합격한 사람이 6명이니 28명이 회시 초장 강경 점수로 합격했다는 결론이다. 초장 강경 시험의 만점은 16점인데, 13.5분을 받은 사람이 낙방했다면 강경 시험에서 14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28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식년 문과가 이처럼 경서시험의 비중이 높았기에 강경과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강경시험에서 10분을 받았으나, 제술에서 생획을 획득하지 못한 조세환이 낙방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는 1654년 12월에 다시 상경하였다. 1655년 1월, 2월에 성균관과 반춘에 머물며 유생전강에 들어가 2분의 점수를 하사받았다.⁴⁷⁾ 그가 유생전강의 은사 덕분에 1657년 신유 식년 문과에서 초시를 건너뛰고 회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다.⁴⁸⁾ 그는 2년 여 동안 경서공부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회시 초장 강경시험에서 『주역』 약, 『시경』 순통(純通), 『서경』 순통, 『논어』 통, 『맹자』 순통, 『중용』 순통, 『대학』 통을 받아 총 14분을 받아 회시에 합격하였다.⁴⁹⁾ 그리고 전시에서는 ‘구방심야(求放心也)’라는 책문으로 갑과 3등으로 합격하였다.⁵⁰⁾

그는 비정기 문과에도 응시하였는데, 정시 3회, 별시 2회로 총 5회이다. 그가 치른 정시는 경과(慶科)의 성격은 약하다. 1648년(인조 26) 예조에서 나라에 일이 많았으나 과거가 설행되지 않아서 선비들을 격려하는 도리에 어긋나니 정시를 설행하자고 청하였다. 예조에서는 1641년(인조

46) 『조세환일기』 갑오년 9월 27일.

47) 『조세환일기』 을미년 2월 15일.

48) 『승정원일기』 효종 8년 2월 9일(임오).

49) 『조세환일기』 신유년 9월 3일.

50) 『조세환일기』 신유년 9월 13일, 9월 14일.

19) 인조의 건강이 나빠 오랜 동안 시험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선비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해 9월에 시행한 정시와 1642년(인조 20) 강경과 제술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한 정시를 전례로 들었다.

인조 때에는 57회의 문·무과가 시행되어 1년 평균 1.9회의 시험이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1647년에는 한 번의 시험도 없었고, 1648년에도 식년 시험만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예조에서 식년 시험을 치르러 상경한 유생을 대상으로 한 정시의 설행을 청하였다.⁵¹⁾ 그 결과 식년 문과 회시가 시행되기 전인 8월 25일 인정전에서 정시(庭試)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응시자는 3,461명이었다. 정시의 시험과목은 표(表)였고, 당일 출방하였다.⁵²⁾

1649년 4월 4일에 치러진 정시는 별시 후에 있었다. 이해 2월 별시 초시가 끝났는데 유생들이 정시 설행을 바라면서 흠어지지 않자, 인조는 예조에 정시를 설행하라고 전교하였다.⁵³⁾ 예조에서는 별시 전시 창방이 끝난 후에 농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정시 날짜를 정한 것이 4월 4일이었다.⁵⁴⁾ 정시의 시관으로는 독권관으로 이경석 등 7명, 대독관으로 이행진 등 10명이었다.⁵⁵⁾ 시험과목은 표로 시제는 의한육가사명전설시서(擬漢陸賈謝命前說詩書)였다.⁵⁶⁾ 정시에 응시한 유생은 2,043명이었는데⁵⁷⁾, 출방은 다음날 이루어졌다.⁵⁸⁾ 조세환도 별시에 낙방하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서 정시를 치렀으나 소득은 없었다.

51)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7월 13일(병자).

52) 『조세환일기』 무자년 8월 25일.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8월 25일(정사).

53)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3월 20일(기묘).

54)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3월 21일(경진).

55)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4월 3일(신묘).

56) 『조세환일기』 기축년 4월 4일.

57)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4월 4일(임진).

58) 『조세환일기』 기축년 4월 5일.

【표 2】 조세환의 비정기 문과 응시 실태

번호	연도	종류	장소	시관	결과	비고
1	1648	정시	인정전		낙방	표(表) 한공우청영근신일하 가물위사판매여민쟁 리아(漢貢禹請令近臣 以下家勿爲私販賣與 民爭利也)
2	1649	별시 초시	1소 한성부	시관 조익, 임담, 신유 참시관 권우 ⁵⁹⁾ , 홍처량, 김덕승, 신 숙	합격	책(策) 삼하
			2소 태평관	시관 오준, 최혜길, 이시해 참시관 엄정구, 윤립, 이해창 심유행		
		별시 전시		독권관 이경석, 조정, 최혜길 대독관 이행진, 신면, 이삼. 원진명	낙방	책 문례(問禮)
3	1649	정시		독권관 이경석, 김육, 오준, 여이징, 최혜길, 허계, 송시길 대독관 심지원, 신유, 신면, 조수익, 이행진, 민광훈, 심지환, 홍처량, 이 제형, 유계, 신익전	낙방	표(表) 의한육가사명전설시 서(擬漢陸賈謝命前說 詩書)
4	1655	춘당 대 정시	춘당대		낙방	부(賦) 제거결사(齋居決事)
5	1656	별시 초시	한성부		합격	중시 대거 별시, 300관시 는 삼중, 책 차하
		별시 전시		대독관 정태화, 채유휴, 유순지 독권관 조한영, 김수항, 이은상, 김 진	낙방	책 정심질욕구언육제 (定心窒慾求言育才)

그가 치렀던 1655년(효종 6)의 정시 문과는 관무재 대거 춘당대 친림정시 문과였다. 무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무재만 치를 예정이었으나, 유생들에

59)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2월 28일의 기사에 따르면 참시관 중 『조세환일기』의 내용과 다른 사람이 있다. 조세환은 權隅라 하였으나, 『승정원일기』에는 韓續으로 되어 있다.

제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치러진 것이다. 정시 문과의 장소가 춘당대였으며 효종이 친림하였다. 시험과목은 부(賦)로 시제는 재거결사(齋居決事)였다. 정시 합격자는 당일 출방하였으며, 유경(柳旻) 등 7인이 선발되었다.⁶⁰⁾

그가 치렀던 2번의 별시는 모두 삼백관시로 초시가 서울에서 치러졌다. 1649년에 시행된 별시는 1648년의 왕세손 책봉 경축 때문에 설행된 것이다. 왕세손 책봉 별시 규례는 1645년(인조 23) 왕세자 책봉 별시 규례를 참조하였다. 1645년 별시는 왕세자 책봉과 왕세자 입학이라는 두 개의 경사를 합한 별시로서 초시를 서울과 지방에서 치르는 육백관시로 행하였다. 시험규칙은 초장은 부와 표, 종장은 책문이며 강경은 생략하였다. 이 전례를 따랐으나, 왕세손 책봉이라는 하나의 경사에 대한 별시이므로 초시의 규모를 줄여서 서울에서만 치르는 삼백관시로 행하기로 하였다. 1648년 식년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별시의 기일을 다음해 봄으로 정하게 되었다.⁶¹⁾

조세환은 별시를 위해 2월 19일 고향을 출발하여 23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초시 초장은 29일에 있었으며 그는 1소인 한성부에서 시험을 치렀다. 시관은 시관 3명, 참시관 4명으로 이루어졌다. 1소 초장의 부제(賦題)는 유유군석(諭留君奭)이고, 표제(表題)는 제공모부청요덕불관병(祭公謀父請耀德不觀兵)이었으며, 종장의 책문은 성(性)이었다.⁶²⁾ 1소의 응시자는 1,781명이었으나⁶³⁾, 시권을 제출한 응시자는 1,016명이어서⁶⁴⁾ 응시자의 57%만이 답안을 제출한 셈이다. 조세환은 종장의 책문에서 삼하(三下)를 받아 1소 150명 안에 들어 합격하였다.⁶⁵⁾

60) 『조세환일기』 을미년 4월 11일.

61)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9월 11일(임신).

62) 『조세환일기』 기축년 2월 29일.

63)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2월 29일(무오).

64)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3월 2일(신유).

65) 『조세환일기』 기축년 3월 7일.

초시 합격자들은 전례에 따라 강경 시험 없이 25일에 전시를 치렀다.⁶⁶⁾ 전시 시관은 시험 전날인 24일 좌의정 이경석을 비롯한 독관관 3명과 이행진, 신면 등 대독관 4명이 낙점되었다. 전시 책문은 예(禮)로써 300명의 전시 응시자 가운데 297명이 답안을 작성하였다.⁶⁷⁾ 이 시험에서 13명이 선발되었으나, 조세환은 낙방하였다.

1656년 중시 대거 별시 문과가 시행되었는데 초시는 삼백관시로 서울에서 행해졌다. 조세환은 1소인 한성부에 들어갔으며 초장의 과목은 부이고, 종장의 과목은 책문이었다.⁶⁸⁾ 그는 이 시험에서 논 삼중, 책문 차하중 1등 제4명으로 합격하였다.⁶⁹⁾ 별시 강경 역시 한성부에서 실시했는데, 『주역』과 『맹자』 모두 약을 받아 통과하였다. 전시는 8월 24일에 있었는데, 과목은 책(策)으로 시제는 정심질욕구언육재(定心窒慾求言育才)였다.

조세환이 비정기문과를 치른 결과를 보면, 논(論)과 책(策)으로 별시 문과 초시에는 합격하였다. 반면 표나 부가 출제 과목이었던 정시에는 모두 낙방하였다. 17세기 알성 문과, 정시 문과, 별시 문과 전시 등에서 출제된 제술 과목을 분석하면, 알성 문과 출제 과목의 70.6%, 정시 문과 출제 과목의 50%가 표였다. 반면 별시 문과 전시 경우에는 출제 과목의 69.4%가 책문이었다. 알성 문과에는 논이 전혀 출제되지 않았으며, 정시 문과에서 논이 출제되긴 했으나 5.4%에 지나지 않았다. 별시 문과 전시 역시 논이 출제된 경우는 5.6%로 출제 빈도가 낮았다.⁷⁰⁾ 이러한 출제 경향으로는 논에 능한 생원 조세환이 알성시나 정시에서 합격할 가능성은

66) 『조세환일기』 기축년 3월 25일.

67)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3월 26일(을유).

68) 『조세환일기』 병신년 7월 19일.

69) 『조세환일기』 병신년 7월 28일.

70)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17세기 비정기 문과(알성 문과, 정시 문과, 별시 문과)의 방목 정보를 통해 총 90회의 출제 과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없었다. 별시 문과 전시의 경우 책문 출제 빈도가 높아서 조세환에게 유리한 편이긴 했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IV. 조세환의 성균관 과시 응시와 과업

조세환은 10년 동안 8회의 각종 문과에 응시하였다. 그는 1회의 제술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정시에서는 낙방하였고, 식년 문과와 별시 문과의 경우 초시에서는 모두 합격하였지만 회시 혹은 전시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그는 문과 합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직부의 특전이 주어지는 유생과시에도 응시하였다.

【표 3】 조세환의 유생 과시 응시 실태

번호	연도	종류	장소	시관	결과	비고
1	1654년 6월	전강	선정전	효종 친립 고관 김종경, 채유후 참고관 정지화, 심지한, 이연년, 이만영 ⁷¹⁾	낙방	不
2	1655년 1월	인일제	성균관	대제학 채유후, 대사성 김익희 좌승지 김좌명 ⁷²⁾	낙방	시험과목 부
3	1655년 1월	황감제	성균관	대제학 채유후, 대사성 김익희 도승지 이행진 ⁷³⁾	낙방	시험과목 표
4	1655년 2월	전강	인정전		입격	『주역』약(略) 2분(分)

	表	箴	銘	策	頌	論	詔	賦	制	箋	미상	합계
알성 문과	12	2	3									17
정시 문과	18	2	2		3	2	1	6	1	1	1	37
별시문과	2	1		25		2		4			2	36
합계	32	5	5	25	3	4	1	10	1	1	3	90

71) 『승정원일기』 효종 5년 6월 15일(계유).

조세환이 성균관과 사학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생과시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현전하는 일기에서 그가 유생과시에 응시한 것은 1654년(효종 5) 6월 전강이 처음이었다. 유생 전강은 조선 전기부터 있었고 직부의 특전도 주어졌지만, 정례화 되지는 못하였다가 17세기 인조 때에 절제(節製)와 함께 직부의 특전이 주어지는 유생과시로 정례화 되었다.⁷⁴⁾ 유생전강은 2월, 4월, 6월, 10월, 12월 등 짝수 달 15일에 설행되는데, 국왕의 품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었다. 『태학성전』의 전강조를 참조하면, 유생전강 응시 대상은 전강 시행에 대한 국왕의 계하가 내려져 승정원에서 성균관에 감결을 보내면 장무관이 그날 저녁 식당도기로 명단을 작성한다고 하였다.⁷⁵⁾ 『태학지』에도 서울 유생이든 지방 유생이든 그 당시 성균관과 사학에 있었던 유생이 응시 대상이라고 하였다.⁷⁶⁾

지방 유생의 전강 응시 실태는 어떠하였을까? 전강 응시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지방 유생의 전강 응시 실태를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은사 수혜자를 대상으로 그 대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1623년(인조 1)의 전강부터 조세환이 마지막으로 응시했던 1655년(효종 6)의 전강까지 은사 수혜자를 정리한 【부표 1】을 참조하면, 은사 수혜자 중에서 생원·진사의 거주지는 확인이 가능하다. 34년 동안 전강에서 직부, 점수, 물품 등의 은사를 받은 생원·진사는 122명인데, 그중 지방 거주자가 62명으로 50.8%에 달한다. 지방 거주 생원·진사가 모두 성균관에 계속 거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이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거재하면서 관시를 준비하는 기간은 다음 식년에 생원진사시 합격자가 배출되기까지 3년일 가

72) 『효종실록』 권14, 효종 6년 1월 8일(계사).

73) 『승정원일기』 효종 6년 1월 18일(계묘).

74) 원창애(2012), 「조선시대 문과 직부제 운영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3, 105쪽.

75) 『태학성전』 권3, 식례, 전강조.

76) 『태학지』(규 15217) 4책, 권8 전강조.

능성이 높다.⁷⁷⁾

지방 거주자로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그해부터 3년 내에 전강에 응시하여 수혜를 입은 생원·진사는 122명 중 17명으로 13.9%에 지나지 않는다. 생원진사시에 합격한지 4년 이상 되는 지방 거주 생원·진사가 86.1%가 되며 이중에는 생원진사시에 합격하고 10년이 넘어서 전강에서 은사 수혜를 입은 경우가 21명으로 17.2%나 된다. 17세기 전반기 유생전강 은사 수혜자 중에 지방 거주 생원·진사가 50%가 넘는데, 그들의 86.1%가 생원진사시에 합격한지 4년 이상 된 이들이다. 이들이 삶의 터전을 두고 계속 서울에 머물러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들 역시 조세환처럼 때때로 서울에 올라와 반촌에 숙소를 정하고 성균관에 드나들며 전강에 낙점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학성전』의 유생전강 절차를 보면, 해당 달 11일에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품지를 받고나서, 성균관에 감결을 보낸다. 성균관의 장리(掌吏)가 당상관에게 보고하면, 장무관은 당일 저녁 식당 도기를 보고 나이순으로 명단을 만든다. 사학(四學)에서도 거제 유생 5명씩을 적는다. 12일이나 13일에 생원·진사, 하재생, 사학 유생 순으로 정리한 단자를 승정원에 올린다. 승정원에서는 국왕에게 전강단자를 올려 생원·진사 5인, 하재 1명, 사학 각 1명을 낙점 받는다. 낙점 받은 유생들은 흑단령을 입고 대궐 앞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시험에 임한다.⁷⁸⁾

유생전강은 국왕이 참석하는 친림 전강과 명관(命官)이 주관하는 전강으로 나뉜다. 국왕이 친림하지 않을 때는 삼정승 중에 1명이 명관으로 참석하고, 독권관 2명, 참고관 4명으로 구성된다. 독권관이 권침(卷籤)을

77) 최광만(2014), 「『태학성전』의 학사운영규정 분석」, 『교육사학연구』 24(2), 212~214쪽

78) 『태학성전』 권3, 식례, 전강조.

이 규정에 의거하면 성균관 유생의 경우는 식당 도기에 이름이 있는 도기생이, 사학의 경우는 거제생이 전강 응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내놓고, 대문(大文)의 장침(長籤)을 내놓으면 주서가 강할 서책을 시관에게 두루 알린다. 강할 유생들은 순서에 따라 강소에 나아가 배강하며, 점수는 주서가 씨를 거두어 북향하여 외치면 배강한 유생은 강한 책에 점수를 기록하고 나온다. 국왕이 친림했을 때의 은사는 순통(純通) 직부전시, 통(通) 직부회시, 약(略) 1분, 조(粗) 지필묵 등이다. 반면 명관이 시험한 경우의 은사는 순통 직부회시, 통 2분, 약 1분, 조 지필묵이다.⁷⁹⁾

조세환은 1654년 갑오 식년 문과 초시에 합격하고 난 후에 상경하였다. 회시는 9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는 4월 8일에 출발하여 4월 11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가 일찍 상경한 것은 반촌에 머물며 성균관에 드나들면서 원점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여겨진다. 그는 장의동 친족의 집에 들렀다가 숙소를 따로 정하여 지냈는데, 5월에는 반촌으로 숙소를 옮겼다. 6월 9일 그가 성균관에 들어갔을 때 마침 내척간(內擲奸)이 행해졌다.⁸⁰⁾ 그가 내척간이 있던 날 성균관에 들어갔던 것은 궐내의 소식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6월 8일 선전관 민련(閔鍊)이 조세환에게 숙소에 들렀다.⁸¹⁾ 민련은 조모 민씨의 조카로서 조세환에게는 척숙이 되는데, 무과 출신 선전관이었다. 그가 유생전강에 대해 관여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궐내의 상황이나 정보를 조세환에게 알려줄 수는 있었다.

사실 이 해 4월 15일 유생전강을 하려했으나, 국기일과 겹쳐서 시행하지 못하였다.⁸²⁾ 그 후 효종은 6월에 있을 유생전강에는 친림하겠다고 하였다.⁸³⁾ 승정원에서는 전례대로 6월 11일에 15일 유생전강이 포폄문서를 열어보는 날과 겹치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탈계(顛啓)를 올렸으나, 효종은 유생전강을 16일로 미루어 시행하겠다고 하였다.⁸⁴⁾ 효종은 친림

79) 주 41 참조.

80) 『조세환일기』 갑오년 6월 9일.

81) 『조세환일기』 갑오년 6월 8일.

82) 『승정원일기』 효종 5년 4월 12(신미).

83) 『승정원일기』 효종 5년 4월 18(정축).

하겠다고 공언한 유생전강이 6월 정기 관원의 포폄과 겹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미루어 치를 계획을 하고 9일에 유생 척간을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태학성전』에는 승정원에서 국왕의 품지를 받은 날에 척간이 이루어지고 명단이 작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의 인조와 효종 때 기사를 참조하면, 유생 척간은 대개 전강이 있는 달 10일 전후로 이루어지고 있어, 『태학성전』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조세환은 6월 13일에 자신이 낙점에 들었음을 알게 되었다.⁸⁵⁾ 조세환은 16일 일찍 대궐 앞으로 가서 대령했으나, 이날 효종의 건강상 문제로 전강이 18일로 미루어졌다.⁸⁶⁾ 18일 전강에서 그에게 주어진 대문(大文)은 『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 “세상의 일을 보면 귀결점은 같은데 가는 길이 다르고,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데 생각은 가지각색이다. [天下同歸而殊塗 一致而百慮]”라는 것이었는데, ‘불(不)’을 받았다.⁸⁷⁾ 이날의 성적은 1등 생원 이수항(李守恒) 직부전시, 생원 한정일(韓井一), 진사 안후창(安後昌)·여성제(呂聖齊)는 각기 2분씩, 유학 구인희(具仁熙) 1분, 진사이당규(李堂揆)는 종이 5권 붓 5자루, 먹 5정(丁)을 받았다.⁸⁸⁾ 10명의 응강 유생 중 6명이 각종 은사를 입었으니 4명은 ‘불’을 받았다는 결론이다.

전강의 은사는 배강한 점수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은사 수혜 인원이 일정하지 않다. 【부표 1】을 보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2명까지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5~6명이 은전을 받았다. 국왕이 친림하였을 경우 은사 등급은 직부전시, 직부회시, 1분, 지필묵 등으로 나뉘는데, 1654년 6월 전강의 은사는 직부전시, 2분, 1분, 지필묵 등이 하사되었다. 생원 한정일 등 3명에게 2분이 주어진 것은 이들이 배강 과목으로 『주역』을 선

84) 『승정원일기』 효종 5년 6월 11(기사).

85) 『조세환일기』 갑오년 6월 13일.

86) 『조세환일기』 갑오년 6월 18일.

87) 주 48 참조.

88) 『승정원일기』 효종 5년 6월 18(병자).

택하여 점수가 배가 되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친림전강은 효종 때에 처음 시행되었다. 17세기 각 왕대별 친림전강의 횟수는 효종 1회, 현종 1회, 숙종 7회 등이다.⁸⁹⁾ 효종 때에 시작된 친림전강이 숙종 때에 자주 시행되어서 전강을 통해 직부전시를 받는 이들이 늘어났다. 17세기에 효종이 1654년 6월 전강에 친림하기 전에는 전강에서 직부전시를 받은 이는 없었다. 그러나 숙종 때 친림전강이 늘고 여러 명이 직부전시를 하사받는 일까지⁹⁰⁾ 있어 유생전강으로 직부전시를 받는 유생이 많아졌다.

직부전시를 제외한 은사로 문과에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았다. 은사로 받은 직부전시, 직부회시, 점수 등은 다음 식년 문과에 적용되었다. 직부전시를 받은 유생은 은사로 문과에 합격은 했으나 합격 등급을 정하는 식년문과 전시에 응시해야 한다. 직부 회시와 2분을 받은 경우는 초시를 면제받고 회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부표 1】을 보면, 직부회시를 받은 유생이 39명이었고, 2분을 받은 유생도 39명이다. 직부 회시를 받은 유생 39명 중에 17명(43.6%), 2분을 받은 유생 39명 중에 12명(30.8%)이 다음 식년문과에 합격하였다. 1분을 받은 유생은 식년문과 초시를 한성시로 치르게 하는데 사관(四館)의 관원을 보내서 이들을 따로 불러서 제술시험을 보게 하여 초시의 당락을 결정하였다.⁹¹⁾ 1분을 받은 유생 67명 중에서 12명(17.9%)이 다음 식년 문과에 합격하였다. 은사 수혜자들의 문과 합격 점유율을 통해서 직부전시가 아니고서는 은사를 받고도 다음 식년에 문과에 합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은전의 등급과 합격 점유율이 비례하기 때문에, 좋은 등급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계속 전강에

89) 정지연(2019), 「조선후기 유생전강 운영 연구」, 『교육사학 연구』 29, 98쪽, 【표 2】 인조 - 경종 연간(1623-1724) 유생전강 시행 현황.

90)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2월 16일(임진).

91) 『대학성전』 권3, 式例 殿講條.

응시하는 유생들이 있었다. 조세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1654년 6월 직부전시를 받을 수 있는 친림 전강에 들어가게 된 것을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고 표현했다.⁹²⁾ 그가 비록 친림전강에서 ‘불’을 받긴 했으나, 유시과시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1654년 가을 갑오 식년 문과 회시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그해 11월 22일 가족까지 데리고 서울에 도착하여 일단은 청파동에 거처를 정하였다. 거의 한 달 동안 집안을 돌보고 나서 12월 22일에 처음 성균관에 들어가 친분이 있는 박자진(朴自振), 윤변(尹忭), 이창래(李昌來), 이회(李茴), 안시철(安時哲) 등 여러 생원·진사를 만났고 식당에도 들렀다. 그는 반촌에 별도로 숙소를 정하고 성균관에 드나들며 식당도기를 채웠다. 조세환은 1655년 1월 5일부터 21일까지 거의 성균관에서 머물렀는데, 이것은 1월 7일 시행되는 인일제(人日製)와 황감제를 위한 것이다.

『태학성전』에 의거하면, 17세기 성균관의 절일제와 황감제의 응시자격은 성균관의 거재유생과 방외유생이었다. 방외유생은 거재유생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성균관 상·하재 유생 이외에 성균관 절일제와 황감제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자로, 사학생(四學生)이나 성균관에 거재하지 않으나 성균관의 과시에 응시할 수 있는 유생이다.⁹³⁾ 국왕이 하사한 황감을 받는 의례나 절일제 의례를 보면 성균관 거재유생이 방외유생 보다 우선하는데, 이것은 유생과시가 성균관 거재유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왕이 하사한 황감의 경우 거재유생은 1개씩 지급되나, 방외유생은 1/4쪽씩 지급되어 차별을 두었다.⁹⁴⁾ 절일제 의례에서는 상·하재의 유생들이 뜰에 나와 읍(揖)을 한 후에 문을 열어서 방외유생을 들어오게 한다.

92) 『조세환일기』 갑오년 6월 시작 부분에 세주로 6월 18일 친림 전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十八日殿講 上親臨千載一遇 而逢繫辭書自不 不勝媿悚

93) 최광민(2016), 「조선후기 방외유생 용례 분석」, 『교육사학연구』 26(2), 174~176쪽.

94) 『태학성전』 권3, 式例 黃柑條.

거재유생이 앞에서 반(班)을 이루고, 방외유생은 그 뒤쪽에 반을 이루어 북향하여 차례로 서서 정읍례(庭揖禮)를 하고 시험장으로 들어간다.⁹⁵⁾

조세환은 인일제가 있기 이틀 전인 1월 5일부터 성균관에서 지냈다. 인일제는 원래 1월 7일에 시행되는데, 하루가 연기되어 1월 8일에 있었다. 인일제의 과목은 부(賦)로 시제는 ‘시기초당(詩寄草堂)’이었다.⁹⁶⁾ 인일제 방은 다음날 나왔으며, 서문상(徐文尙)이 1등으로 직부회시를 하사받았다.⁹⁷⁾ 18일 황감을 하사받고 황감제를 치렀으며, 과목은 표로 시제는 ‘동한진총 청당척번가지정 이제군생(東漢陳寵 請蕩滌煩苛之政 以濟群生)’이었다.⁹⁸⁾ 황감제 방도 다음날 나왔는데, 서얼 이명빈(李明彬)이 1등으로 직부전시를 하사받았다.⁹⁹⁾

그는 황감제 방이 나온 1월 19일에 성균관에서 나왔다가 다시 2월 10일부터 반촌에서 지냈다. 2월 11일 승정원에서는 15일로 예정된 유생전강에 대해 품지를 받았다.¹⁰⁰⁾ 그가 2월 15일 전강에 들어간 것을 보면, 반촌에서 지내면서 식당도기를 챙겨서 전강단자에 이름이 오른 것 같다. 이 전강에서 유학 이국상(李國祥)은 『맹자』에서 ‘통’을 받아 직부회시를, 생원 조세환, 진사 한빈(翰彬)·이구징(李耆徵)은 『주역』에서 ‘약’을 받아 2분을, 진사 이영험(李英飡)은 『시전』에서 ‘약’을 받고 유학 김익(金錫)은 『맹자』에서 ‘약’을 받아 1분을 하사받았다.¹⁰¹⁾ 2분을 받았던 진사 한빈과 이구징은 조세환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한빈은 목천 거주자로 진사가 되지 9년이 되었고, 이구징은 경주 거주자로 진사가 된지 16년이나 되었다.

95) 『태학성전』 권3, 式例 相位坐起條.

96) 『조세환일기』 을미년 1월 8일.

97) 『조세환일기』 을미년 1월 9일.

98) 『조세환일기』 을미년 1월 18일.

99) 『조세환일기』 을미년 1월 19일.

100) 『승정원일기』 효종 6년 2월 11일(병인).

101) 『승정원일기』 효종 6년 2월 11일(병인).

『조세환일기』 을미년 2월 15일.

이처럼 생원진사시에 합격한지가 오래된 지방 거주자들이 전장에 들어가 점수를 은사로 받았다.

조세환은 3월 24일까지 반촌에 있다가 가족이 지내고 있는 청파로 갔다. 그는 1657년 정유 식년 문과 회시에 응시하기까지 유생과시에는 더 이상 응시하지 않았다. 그는 표나 부로 승패를 가리는 절일제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가 2분보다 등급이 높은 직부회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유생전장에 다시 도전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직부회시나 2분의 점수가 초시를 면제받고 회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생전장을 준비하기 보다는 다음 식년 회시를 대비한 경서 공부에 집중하였지만, 비정기 문과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1655년 4월 11일에 있었던 관무재 대거 춘당대 정시 문과에 응시했던 그는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흘 동안 경서공부를 하지 못한 것을 한탄할 정도로 후회했다. 춘당대 정시 문과 이후 그는 1654년 갑오 식년 문과 회시 초장에서 ‘약(略)’을 받았던 『주역』과 『시경』, ‘조(粗)’를 받았던 『논어』와 『맹자』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다.

조세환이 청파로 돌아온 이후 집에서 공부하기도 했지만, 지인과 함께 나가서 공부하기도 했다. 그는 5월 20일 최유경(崔有瓚), 그의 아들 최진희(崔晉禧), 그의 조카 이수종(李壽宗) 등과 함께 청계사에서 한 달여 동안 공부하고 6월 27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식년인 1657년(효종 8)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는 이광직(李光稷)과 함께 지냈다. 이광직은 한산이 씨로 조세환의 모친과 동성이나 파계는 다르다. 그가 조세환보다 17세나 어리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19세에 생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두 사람은 이광직의 처조부인 김상헌의 옛집에서 약 한 달 보름 동안 경서 공부를 하였다. 이광직은 2월 30일에 시작된 문과 초시(한성시)에 응시하여서 3월 7일 그가 장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접(罷接)해서 각기 집으로 돌

아갔다.

조세환이 그의 일기에 ‘정유식년 초방(丁酉式年 草榜)’이란 제목으로 제1과 제2로 나누어 합격자 명단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자신의 이름은 제1에 들어있었다.¹⁰²⁾ 초방에 기재된 인원은 제1에 34명, 제2에 34명이다.¹⁰³⁾ 초방을 제1, 제2로 나누어 놓은 것을 보아서는 한성시 초방으로 추정된다. 『경국대전』의 문과 초시 합격 인원을 보면 한성시는 40명으로 규정되어 있었다.¹⁰⁴⁾ 16세기 말부터 계속된 전란으로 경기가 피폐해져서 경기 향시 합격 인원 20명을 한성시에 합쳐서 한성시의 합격 인원이 60명으로 늘었다. 그러므로 한성시의 경우 초시 합격 인원은 1소 30명, 2소 30명이다.

그런데 17세기에 들어 인조 때부터 유생과시가 정례화되어 점수를 하사받는 인원이 늘어가게 되면서 합격 정원이 지켜지지 않았다. 유생과사에서 1분과 2분을 받은 유생들이 한성시를 치르게 되면, 유생과시와 무관한 한성시 응시자들은 초시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1630년(인조 8) 경오 식년 문과와 1633년(인조 11) 계유 식년 문과에서 2분을 받은 자들도 직부회시와 마찬가지로 초시를 면제해주어 초시 원방의 인원을 유지해 주었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그 이후에도 2분을 받은 자들은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¹⁰⁵⁾

102) 『조세환일기』 갑오년(1654) 12월 29일과 을미년(1655) 1월 1월 사이 빈 공간에 정유식년 초방이 기재되어 있다.

103) 『조세환일기』에 실린 신유 식년 초방 명단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첫째, 이미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 끼어 있다. 제1방에 실린 元槁과 제2방에 실린 尹弼殷이다. 원적은 1654년(효종 5) 갑오 식년 문과에 합격하였으며, 윤필은은 1656년 중시 대거 별시 문과에 합격하였다. 둘째, 한성시 초시에서 정원한 이광직이 없다.

104) 『경국대전』 권3, 예전 식년문과초시.

105) 『승정원일기』 141책 효종 7년 8월 22일(정유)

尹鑠 以禮曹言啓曰 儒生等得恩賜分數者 例居製述之上 分數者多 則以製述參榜者 無多 三年一大比之盛舉 反歸埋沒 爲舉子者 亦甚落莫 故丙寅年間 本曹啓請議大臣 定奪恩賜二分竝赴會試 庚午癸酉兩試年 亦依此規例施行 甲午六月以後恩賜之

조세환이 전장에서 받은 2분은 1657년(효종 8) 정유 식년 문과 초시에 적용되었는데, 이때 2분을 받은 유생 15명, 1분을 받은 유생 17명으로 32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한성시 초시에 응시한다면 그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 한성시 응시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어 2분을 받은 유생도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직부회시, 2분을 받은 유생들을 식년 문과 한성시 원방에 더하므로 한성시 합격자는 60명을 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조세환이 적어둔 정유 식년 초방이 그러한 실례가 된다. 제1, 2의 합격자가 68명인데, 이들 중 9명이 초시를 치르지 않은 직부회시 유생과 2분을 받은 유생이었으므로, 원방은 59명인 셈이다.

정유 식년 초방을 통해서 유생과시를 통해 회시에 직부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자들과 문과 합격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있다. 정유 식년문과의 응시 대상이 되는 은사자는 1654년 6월부터 1656년 8월까지의 유생과시 합격자이다. 이 시기 유생 과시에서 은사를 받아 정유 식년문과 회시에 바로 응시할 자격이 있는 유생은 총 25명이다. 이들 중 직부회시를 받은 유생은 총 10명인데, 유생전강 7명, 황감제 1명, 절일제 3명 등이다.¹⁰⁶⁾ 그 외 2분을 받은 유생은 15명이다.

직부회시의 은사를 받은 10명 중에 정유 식년 초방에 든 사람은 1654년(효종 5) 10월 전장에서 은사를 받은 김세정(金世鼎)과 1655년(효종 6) 6월 전장에서 은사를 받은 민황(閔鏞) 2명뿐이었다. 1654년 8월 전장에서 직부회시를 받은 이해(李楷)의 경우는 초방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1657년 정유 식년 문과에 합격했다. 조세환이 기록해둔 정유 식년문과 초방에 문과에 이미 합격한 사람이 2명이나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가 없는 것

得分數者 取考前後承傳 則至於三十二人 而二分十五人 一分十七人 今亦依前定奪之規 二分則許令直赴會試 一分則分送漢城試兩所 如何 傳曰 允

106) 직부회시를 받은 사람은 총 11명이어야 하나, 徐文尙이 1656년 인일제와 7월7일 절일제에서 모두 직부회시를 받았으므로 실제 인원은 10명이다.

은 그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머지 8명 직부회시 유생은 초방에도 이름이 없었고, 해당 식년 문과 방목에도 이름이 없다. 이러한 경우는 은사 직부첩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직부회시를 받은 10명 중에 서문상(徐文尙)은 1655년 인일제와 7월 7일 절제에서 모두 1등을 하여 직부회시를 2번이나 받았으나, 정작 1668년(현종 9) 별시에 합격하였다. 이 당시에는 유시과사에서 은사를 받은 자들은 식년 문과에만 응시할 수 있었다. 제술에 능하여 성균관 절일제에서 1등을 하여 직부회시를 받았더라도 식년 문과 회시 초장에서 경서 7과목을 배송해야 하므로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1656년 8월 예조에서 정유 식년문과 대상자를 보고할 때 2분을 받아 회시에 직부될 인원은 15명이라고 했다.¹⁰⁷⁾ 『승정원일기』에서 전강, 황감제, 절일제의 은사 기록을 조사하여 13명은 확인할 수 있었다. 2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13명 중에서 1654년 6월 전강에서 2분을 받았던 여성제(呂聖齊)와 안후창(安後昌)은 이미 1654년 갑오 식년 문과 초시에 합격한 후에 치른 전강에서 2분을 받았다. 그들은 이 은사와는 별도로 이미 예정된 회시에 응시하여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미 문과에 합격한 2명을 제외한 11명 중 7명은 초방 명단에 들어있다. 초방에 없는 사람은 4명인데, 3명은 신유 식년문과 합격자 명단에도 없었고, 1명은 『승정원일기』에서 이름한 글자가 결자(缺字)여서 확인할 수 없다.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하더라도 11명 중에서 3명이 급분첩 사용을 포기한 셈이다.

조세환은 한성시 방이 나온 날 바로 다시 반촌으로 가서 3월 13일에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기 시작했고, 17일부터는 동재에서 머물렀다. 식년 문과 초시에 합격한 성균관 유생은 원점을 획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제행(除行)이라고 한다. 이들이 회시를 위해 성균관에 거제하면서

107) 주 98 참조.

경서 공부를 하는 경우 수복(守僕)의 처가 저녁에 기름을 받아가는 유생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원점으로 계산해 주었다. 이를 제행 원점이라고 하는데, 이 원점은 다음 식년에 사용할 수 있었다.¹⁰⁸⁾ 조세환도 제행 원점을 위해서 약 2달 정도 성균관에서 지냈다.

5월 19일 이광직이 성균관으로 조세환을 찾아와 함께 공부하기를 청하여자, 그는 성균관과 접소(接所)를 왕래하면서 회시를 준비하였다.

그 결과 9월 3일 회시 초장의 강경 시험에 들어가서 7과목 중 『주역』만 약을 받고 나머지 6과목에서 순통 또는 통을 받아 도합 14분을 받았다. 그 결과 제술의 생획이 없이도 회시에 합격하였다. 게다가 전시의 책문도 잘 지어서 갑과 3등을 차지하였다.

V. 결론

지방 거주 생원 조세환의 문과 응시 사례를 통해서 생원이 문과에 응시할 경우에 필수 요건인 원점 문제, 원점을 획득하기 위한 지방유생들의 성균관과 반촌 생활, 그리고 성균관에 기거하면서 주어지는 유생과사와 은사, 그 은사와 문과 합격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조세환은 충청도 홍주에 거주한 생원으로 1657년(효종 8)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그는 19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43세가 되어서야 문과에 합격하였다. 그가 문과 합격이 늦었던 것은 인조대의 시대 상황을 비관적으로 여겨 입신양명을 포기했다가 조모의 권유로 뒤늦게 과업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일기에 의하면 그는 10년 동안 식년문과 3회, 정시문과 3회, 별시 문과 2회 등 총 8회의 문과에 응시하였다.

108) 『승정원일기』 65책 인조 16년 5월 20일(임오).

조세환은 생원으로서 식년문과에 응시할 경우에는 원점이 필요하였다. 그는 관시가 아니라 충청우도 향시에 응시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150점의 원점이 필요하였다. 지방의 생원·진사는 3년마다 돌아오는 식년 문과 초시인 향시에 응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성균관에 거주하거나 반촌에 숙소를 정해두고 성균관에 드나들며 원점 150점을 채워야 했다.

조세환의 원점 획득 양상을 알 수 있는 것은 1654년(효종 5) 갑오식년에서 1657년 정유식년 까지도다. 조세환은 모친상을 마치고 바로 면전에서 있었던 1654년 식년 문과 초시에 응시하였다. 그는 모친의 3년 상을 치르는 동안 원점을 채길 수가 없었는데도 향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반원점 대상 유생이 원점과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인데, 조세환에게는 이 조건이 적용될 수 없었다. 관시의 경우는 부모상을 마치고 15개월 이내에 응시할 경우 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반원점 유생에게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해 2월 20일 문과 초시 합격 통보를 받고 4월 11일에 서울로 도착하였다. 조세환은 9월 14일 전례강을 보았으니, 5달 동안 서울에 머물렀다. 그는 반촌에 머물며 성균관에 드나들었고, 이때 도기로 응시자격을 획득하는 유생전강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그는 회시에서 낙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그해 12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성균관과 반촌 그리고 장의동에 있는 자신의 거처에서 지내며 1567년 정묘식년 문과 응시를 위한 원점을 쌓아갔다.

조세환은 1654년 서울에 있으면서 효종이 친림한 유생전강에 응시한 이후 적극적으로 유생과시에 응시하였다. 1654년 12월에 올라와 바로 성균관에 기거하면서 1655년 1월 인일제와 황감제, 2월에는 유생전강에 응시하였다. 그는 제술시험인 인일제와 황감제에서는 은사를 받지 못했으나, 2월 유생전강에서는 2분의 점수를 받았다. 당시 유생과사에서 2분을 받은 유생은 회시에 직부되는 전례가 있었기에 조세환도 초시를 면제받

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유생과시에 응시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기 위해 2년 동안 경서 공부에 매달렸다.

유생전장에서 은사로 직부회시나 점수를 받은 생원·진사들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분석하였을 때 50.8%가 지방 거주자였으며, 이들 중 86.1%가 생원진사시에 합격한지 4년 이상 된 생원·진사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 거주 생원·진사들이 생원·진사가 된 이후에 계속 성균관에게 기거하면서 유생전장에 응시한 것이 아니라 조세환처럼 때때로 서울에 올라와 원점도 챙기고 유생전장에도 응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세환이 2분의 점수로도 문과 초시를 치르지 않고 회시에 직부하게 된 것은 한성시와 관련이 있었다. 17세기 유생과시가 계속 늘어나고, 정례화 되면서 은사로 점수를 받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들이 한성시에 응시할 경우 점수가 없는 이들이 매우 불리하였다. 문과 초시 한성시 정원이 40명에서 임진왜란 이후 경기 향시를 폐지하고 경기도의 향시 정원 20명을 한성시에 포함시켜 60명으로 늘긴 했지만 은사자의 수요가 많아서 초시 합격이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조 때에 은사로 2분의 점수를 받은 이들은 아예 회시에 직부하게 하는 전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회시 직부자가 한성시 초시 합격자에 포함됨으로 한성시 정원이 60명 이상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조세환이 일기에 적어둔 정유식년 초방도 제1방이 34명, 제2방 34명으로 총 68명이었다. 당시 유생과시 은사자는 직부회시 10명, 2분 15명, 1분 17명이었다, 초방에서 확인되는 직부회시와 2분을 받은 은사자는 9명으로 초시를 치러 합격한 원방은 59명이었다. 1657년 정유 식년 문과 회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은사자 총 25명 중에 문과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은 23명이다. 23명 중에 9명이 정유 식년문과에 합격하여서 은사를 활용하지 않은 유생은 14명이다. 14명 중 2명은 정유 식년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문과에 합격하였으나 나머지 12명은 정유 식년 문과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유생과시에서 은사를 받더라도 그 은사가 바로 문과 합격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세환이 문과를 치르던 당시 유생과시의 은사는 식년문과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회시 초장인 경서 배송 시험에 자신이 없다면 회시직부나 2분으로 받은 은사가 유익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세환은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2년 동안 경서공부에 몰두하였다. 그는 2년 사이에 있었던 정시와 별시에 응시하긴 했으나, 경서 공부할 시간을 낭비했다고 여길 정도로 경서에 매달렸다. 그 결과 그는 회시 초장 경서 배송시험에서 16점 만점에 14점을 받아 합격하였고, 전시의 책문에서도 좋은 답안을 작성하여 갑과 3등 탐화랑(探花郎)이 되었다.

지방 거주 생원 조세환의 문과 응시 실태

【부표 1】 1623년(인조 1)~1655년(효종 6) 유생전강 은사 수혜자

지역	전강 날짜	생원	진사	원진	유학	기타	합계	시상내역
1623년	7월 15일	3	2		1		6	직부회시 1, 2분 1, 물품 4
1625년	10월 15일	2	2		3		7	직부회시 1, 2분 2, 1분 2, 물품 2
1626년	11월 16일	3	3		2		8	직부회시 5, 2분 1, 1분 1, 물품 1
1627년	12월 10일	1	2		1		4	
1628년	8월 15일		3		1		4	
	12월 15일	1	2		1		4	직부회시 1, 2분 1, 1분 1, 물품 1
1629년	2월 15일	3			4		7	직부회시 1, 2분 1, 1분 4, 물품 1
	6월 15일	1	1				2	1분 1, 물품 1
	10월 16일	2			3		5	직부회시 1, 1분 2, 물품 2
1630년	2월 16일	2	1		2		5	직부회시 1, 1분 3, 물품 1
	10월 15일			1	2		3	직부회시 1, 1분 1, 물품 1
1634년	10월 15일		2		1		3	직부회시 1, 2분 1, 물품 1
1636년	8월 15일	1	1		2		4	1분 3, 물품 1
1638년	8월 15일	1	4		3		8	직부회시 1, 2분 2, 1분 1, 물품 4
	10월 15일	2	2		1		5	직부회시 1, 2분 1, 1분 2, 물품 1
1639년	5월 22일	5	2		1		8	직부회시 1, 2분 1, 1분 6, 물품 5 ¹⁰⁹⁾
1641년	7월 13일	6	5	3	6	2	22	직부회시 2, 2분 5, 1분 7, 물품 8
1643년	12월 15일	2			2		4	직부회시 2, 2분 1, 1분 1
1644년	10월 15일	1			2		3	직부회시 1, 1분 2
1646년	8월 15일	2	2		3		7	직부회시 2, 1분 2, 물품 3
	10월 15일	1	2		4		7	직부회시 1, 1분 3, 물품 3
1648년	8월 15일	1	2		3		6	직부회시 1, 2분 1, 1분 3, 물품 1
1649년	12월 15일	2	1				3	
1651년	6월 15일	1			4		5	직부회시 1, 2분 2, 물품 2
1652년	2월 15일	3	1		3		7	2분 3, 1분 3, 물품 1
1653년	2월 19일	2			3		5	직부회시 2, 2분 1, 1분 1, 물품 1
	6월 15일	2			3		5	2분 1, 1분 3, 물품 1
	10월 16일	2	1		2		5	직부회시 1, 1분 1, 물품 3
	12월 17일	1	2		3		6	직부회시 1, 1분 1, 물품 4
1654년	6월 18일	2	3		1		6	직부회시 1, 2분 3, 1분 1, 물품 1
	8월 15일	2	3		2		7	직부회시 1, 2분 1, 1분 4, 물품 1

사학연구 제139호(2020. 9)

	10월 15일	1	2		5		8	직부회시 2, 2분 3, 1분 1, 물품 2
1655년	2월 15일	1	3		3		7	직부회시 1, 2분 3, 1분 2, 물품 1
	6월 18일	2			1		3	직부회시 1, 2분 2
	10월 15일	1	2		5		8	직부회시 3, 2분 2, 물품 3
	합계	61	54	4	78	2	199	

109) 『승정원일기』 기사에 의거하면, 물품을 받은 5인을 모두 열거하지 않고 생원 宋琬 등 5인으로 표기되어 있어 생원, 진사, 유학의 인원과 시상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다.[『승정원일기』 인조 17년 5월 22일(무인)]

참고문헌

1. 사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경국대전』

『대전후속록』, 한국학중앙연구원

『趙世煥日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林川趙氏文行錄』, 국립중앙도서관

『국조인물고』, 한국학중앙연구원

『太學成典』, 한국학중앙연구원

『太學志』,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문과방목,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선원록』, 한국학중앙연구원

2. 논저

박영미, 2018, 「17세기 성균관의 인적 구성과 역할」, 『한국교육사학』 40(3)

원창애, 2003, 「문과 급제자의 전력 분석」,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원창애, 2012, 「조선시대 문과 직부제 운영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3

이상무, 2014, 「17~18세기 식년시 성균관 원점법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36-3

정지연, 2019, 「조선후기 유생전강 운영 연구」, 『교육사학 연구』 29

차미희, 2013,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문과 경상도 향시」, 『한국사학보』 53

최광만, 2014, 「『태학성전』의 학사운영규정 분석」, 『교육사학연구』 24(2)

최광만, 2016, 「조선후기 방외유생 용례 분석」, 『교육사학연구』 26(2)

Abstract

The Civil Examination for High Officials in Choseon Dynasty and its Preparation Procedures with Reference to a Local Saengwon Applicant's Life-long Diaries by Cho Se-whan

Won, Chang-Ae

A very new trend of Korean History begins to scrutinize various aspects of administrative realities of the Civil Examination for High Officials (CEHO, in short), for example, how an applicant committed themselves to prepare so as to pass in particular. This paper investigates such detailed realities of CEHO around 17th century through Cho Se-whan case who served his official life until the early days of King Sookjong reign, after he passed it in A.D. 1657 (8th reigning year of King Hyo-jong).

His preparation procedure is contained precisely in his life-long diaries over thirty three years in which comprehensive events, including petty affairs, can be divided such three categories as his hometown lives, Capital Seoul lives, and his official logs. He was originally given a pass in the first examination and entitled Saengwon when he was 19 years old, A.D. 1633 (11th reigning year of King Injo). His diaries were transmitted for the present time after he was 33 years old and contained his trial for CEHO over 10 years.

Local passers of Saengwon were asked to submit Attendance Record (AR, in short) of Capital Confucian School Restaurant which is one of the differences contrasted to Confucian Students or Yu-hak. As passer of Saengwon, Mr. Cho had fine knowledge in depth on Confucian Classics and he was good Argumentative Writing among Composition Subjects. This background was evaluated to pass regular CEHO by every three year rather than to pass another divisions such as Inside Palace Exam or Extraordinary Exam in which no AR was required. The first step towards CEHO asked all applicant to cover over 150 points (more or less half a year attendance, at least) of AR. This is why he went up to Seoul so frequently and then lived at Capital Confucian School as well as near-by villages so as to get the pre-requisite AR sufficiently. He also could apply a division of Confucian Followers in CEHO in addition. He estimated himself that he was superior in Debate Division of Confucian Classics to Composition Division for Memorial Days. He got 2nd rank points and was at last nominated 'Tam-wha-rang' in a regular CEHO held in A.D. 1657 (8th reigning year of King Hyo-jong).

His daries informed us detailed procedures from the applicant perspective; how he prepared the examinations, the way in which the first step passers, Saengwon and Jinsa, tried to get required AR points in general, Confucian Follower Examination held solely for Capital Confucian School and its correlated pass rate, royal permission for Honorary Pass and so forth. All of these facets reflects the actual realities vividly around 17th century which we could not find any source from Administration Code, Chronological Data and others.

Keywords : Cho Se-whan, regular Civil Examination for High Officials every three years, Attendance Record of Capital Confucian School Restaurant, special permission of Passers exclusively for Capital Confucian School, and royal permission for Honorary Pass.